

태풍 오는데... '안전' 없는 백운산 계곡

안전요원 무자격에 고령, 인명구조 장비 턱없이 부족 최근 3년간 5명 익사 불구 물놀이 대책 미흡

태풍 '프란시스코'의 남해안 상륙을 하루 앞둔 5일 오후 광양시 봉강면 백운산 성불계곡은 휴가철을 맞아 가족, 친구, 연인과 피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피서객들은 각자 준비한 물놀이 도구를 이용해 한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피서객들은 계곡 곳곳에 설치된 출입금지를 알리는 통제선을 무시하고 넘나드는가 하면, 통제선을 붙잡고 물놀이를 하는 피서객도 있었다. 통제선이 설치된 계곡은 수심이 깊고,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지역이지만 위험한 물놀이를 제지하거나 통제하는 안전요원은 눈에 띄지 않았다.

광양시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표지판 61개, 인명구조함 29개, 구조장비 33개, 경광등 20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불계곡을 따라 1km 구간을 확

인한 결과, 발견한 인명구조장비는 구명환 1개가 전부였다. 광양시는 또 휴가철인 7월1일부터 8월 말까지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21곳에 각각 안전요원을 배치했다고 했지만, 안전요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안전요원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양시에서 고용한 안전요원 중 상당수는 인명구조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무자격 고령자로 구성된 있어 인

명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작년에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해 올해 새롭게 인명구조함을 설치하거나 기존시설을 개보수했다"며 "안전요원의 경우에는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무자격 고령자들로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광양=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일 광양시 백운산 성불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이 출입금지 팻말을 무시한 채 수심 2m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 /광양=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서구 클럽 붕괴사고, 전 입주 등 3명 추가입건

클럽·공동대표 압수수색 경찰, 대가성 특혜 집중조사

경찰이 광주 '코요테 어글리'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해 3명을 추가 입건하고 해당 클럽과 공동대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5일 지난해 클럽이 입주한 건물에 안전점검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붙잡았다. 과거 공동대표로 있던 B씨와 건물을 관리했던 전 건물 소유 법인 재무관리 이사 C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해당 건물을 안전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이 잠긴 클럽 내부를 점검하지 않고 마치 점검을 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B씨와 C씨는 불법구조물의 증축에 관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일 해당 클럽과 공동대표의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분석해 불법 증축한 공동대표와 관련자들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클럽 공동대표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팀에 증거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숨겨진 업소'로 지칭되는 과정에서 대가성 특혜 의혹이 제기돼, 공동대표들의 계좌 거래 내용을 살펴 보는 등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 특혜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2차 현장감식을 통해 붕괴한 해당 클럽의 복층 구조물이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엄마와 다툼 여고생, 60대 문지마 폭행

광주북부경찰, 현행범 체포

광주북부경찰은 5일 화가 난다며 길에서 마주친 60대 노인을 때린(폭행 혐의) 여고생 A(18)양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4일 밤 11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마트에서 음료수를 사서 나오던 B(69)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양은 엄마와 다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B씨에

게 시비를 걸고 폭행했다. A양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자신도 B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얼굴에 피를 흘리는 등 상처를 입은 B씨는 A양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A양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마치고 보호자를 불러 귀가시켰지만, 목격자와 CCTV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안서 경운기-승용차 충돌 70대 노부부 사망

5일 오후 3시 30분께 무안군 몽탄면 한 저수지 인근에서 그랜저 승용차와 경운기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박

모(79)씨와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박씨의 부인 이모(76)씨가 숨졌다. 경찰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김씨의 승용차가 경운기 적재함 측면을 충격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비행기내 노래 부르고 행패 만취 50대 도착 하자마자 경찰서행

○...술에 취해 비행기 안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서행. ○...5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A(51)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 20분 베트남 남양에서 출발해 오후 7시30분 무안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 여객기에 탑승한 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부터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음향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상 승객의 협조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강력히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가마솥더위'에 온열 환자 잇따라

광주 80대 열사병 증상 호소 영광 70대 논일하다 탈진

열일 이어진 폭염에 광주와 전남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5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북구 삼각동 한 창고에서 박모(34)씨가 탈진으로 쓰러졌다. 119구급대는 박씨에게 얼음조끼를 입히고 수분을 공급하며 병원으로 응급 이송했다. 낮 12시 5분께에는 북구 생용동 주말농장 진입로에서 노모(85)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었다.

또 오전 10시 50분께에는 광산구 월계동 한 야의 공사장에서 작업자 김모(52)씨가 많은 양의 땀을 흘리며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노씨와 김씨 모두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남에서도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영광 모량면 들녘에서 논일하던 정모(73)씨가 탈진 상태로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여름 더위가 시작된 5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광주 22명, 전남 91명 등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독성 물고기 가시 찔리고 땅벌에 쏘이고

휴가철 전남 섬 지역 야생 생물사고 급증

전남 섬 지역에서 독성을 가진 물고기 가시에 찔리고, 땅벌에 쏘이는 등 여름철 야생 생물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 새벽 3시 20분께 여주시 남면 안도에서 통발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던 박모(36)씨가 오른쪽 손가락 엄지서부터 중지까지 수기미(솜뱅이과)의 등가시에 찔려 심한 부종과 통증을 호소해 긴급 이송됐다.

3일 오전 9시께에도 여수 금오도 자택에서 풀을 베던 중 땅벌에 두피를 쏘인 민모(70)씨가 전신 두드러기와 어지럼증을 느껴 여수해경 구조정을 이용해 육지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이들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자택으로 귀가했다. 해경 관계자는 "휴가지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사고로 구토·어지럼증·호흡곤란 증상 등을 보일 수 있다"면서 "휴가철에 닥터헬기 또는 구조정을 이용해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호남동 대원 빌딩 **층별**

" 특별분양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분양가 470만원 ~

" 추천 업종 "

- 1 높은 전용률 **확트인 전망**
여유로운 주차 (300대 이상 주차공간)
- 2 볼링장, 골프존 10~12층
11, 12층 천정고 6m
- 3 특급 한방병원 4~9층
일반 /공유 오피스 사무실
- 4 A.P.T 모델 하우스 1~3층

분양문의 : (주) 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